

산재근로자 재해 전후
가정환경의 변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문 응

산재근로자 재해 전후
가정환경의 변화

지도 원 종 욱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문 응

문 응의 보건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2009년 6월 일

감사의 글

이 글을 쓰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주위의 여러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포기하고픈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와 한없는 사랑으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주신 원종욱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다각도로 보완해 주신 노재훈 교수님, 김형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학과 과정 내내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김치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을 은사님으로 모실 수 있어 행복합니다. 논문통계 및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신 황정호 선생님, 박우석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다보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받침목을 만들어 주셨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노무법인 산재 정유석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못난 선배를 뒤서 밤을 지새우며 마치 자신의 논문을 쓰듯이 열심히 도와주었던 오성군 팀장, 팍태이 팀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하느라 현장에서 발로 뛰어준 노무법인 산재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주환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아내이자 정선이 엄마 강선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차 례

국문요약.....	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II.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대상.....	6
2. 연구 방법.....	6
3. 분석 방법.....	10
III. 연구결과.....	11
1. 일반적 특성 및 가정환경 변화 특성.....	11
2. 경제적 변화 관련 요인.....	15
3. 산업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4. 경제적 어려움 이외의 가정환경 변화.....	26
IV. 고찰.....	28
V. 결론.....	33
참 고 문 헌.....	34
부록(설문지).....	36
영 문 초 록.....	42

표 차례

표 1. 조사변수.....	9
표 2. 일반적 특성.....	12
표 3. 가정환경변화 특성.....	14
표 4.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	16
표 5. 직업적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	18
표 6. 산재요양 관련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	20
표 7.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3
표 8.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4
표 9.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산재요양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25
표 10. 경제적 어려움 이외의 가정환경 변화.....	27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한 근로자 383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후 가정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주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정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산업재해 요양 관련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96.9%가 경제적 문제, 가정불화, 자녀문제 등으로 가정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7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다(OR=3.86, CI: 2.73-6.28).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에 비해 1명 있는 사람은 약 2.7배(OR=2.71, CI: 1.39-5.30), 2명 있는 사람이 약 3.5배(OR=3.58, CI: 2.07-6.19) 높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인 사람이 중졸 이하인 사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적었다(OR=0.45, CI: 0.26-0.81).

산재요양관련 요인과 관련된 특성 중에는 가족이 간병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입원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 3~6개월 이하인 사람이 0.5배(OR=0.55, CI: 0.32-0.95), 6개월 이상인 사람이 0.4배(OR=0.46, CI: 0.26-0.83)로 입원치료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낮았다.

대부분의 가정이 산업재해 후 가정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약 75%가 선택하였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연령, 결혼유무, 부양가족 수, 교육수준, 업종, 간병인, 입원 치료 기간, 장애등급에 따라 주로 결정되었다.

한편, 경제적 변화 이외에도 가족 사이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부담감이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 및 다양한 가정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상담 등 사회적 지지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가정환경 변화,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경제적 어려움, 직업적 요인, 요양관련 요인.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서, 1964년 7월 시행된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는 것과 아울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수행해 왔다(노동부, 2007). 재해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으로 회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에게는 일을 통한 성취감을 다시 부여함과 동시에 생활 여건의 마련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승렬, 2003). 그러나 현재까지의 산재보험은 현금위주의 보상체계 운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계보장에 중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나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현실이며 산재보험재정 중 대부분이 장해급여로 제공되는 현상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이승욱 등, 2007).

다행히 1995년부터 재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199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재활사업부가 설치되었고, 2000년에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설계하면서 재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윤조덕 등, 2001), 2006년 12월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2007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의료재활을 강화하고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었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은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의 4가지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료재활은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직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심리재활은 공통적인 행동제한의 지각이나 신체상의 부상, 인간관계의 긴장, 불안감, 열등감, 욕구불만, 내향성 등의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심리적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며, 직업재활은 적합한 직업과 직종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직업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사회적 수용과 이해 증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회재활은 산재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의 적응을 원조하며 사회통합 내지는 재결합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동부, 2007).

이러한 재활의 분류와 의미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근로자의 재활이 이들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전제로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존재함을 주지하는 것이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정책의 방향이 산재발생 이후 이들이 직장, 가정,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재근로자 보상 문제의 중심이 생계보상에서 재활사업으로 변화되면서 산재근로자 재활에 산재근로자 가족의 지지나 관계의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가족의 지지적인 환경은 산재환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라는 주장(이윤희, 2003)과, 배우자의 지원이 산재장애인의 재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윤조덕 등, 2001) 등의 국내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장애 전후의 가족 적응정도에 따라 직장 또는 학교로의 복귀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Kaplan, 1988)과, 여성이 결혼한 남성보다 휴업기간이 길다는 조사(Johnson and

Ondrich, 1990), 가족의 응집정도, 표현정도, 갈등정도는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Holahan and Moos, 1986)라는 다양한 해외 연구들과도 유사한 보고라 하겠다.

산재근로자 재활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시 되면서 산업재해가 이들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관심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부정적인 삶의 변화가 노동력 상실, 현금보상의 집착, 복지사업비의 지출 증가 등의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문성현 등, 2008).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신체적 기능상실을 지닌 재해 당사자는 산업재해 이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 왔던 역할이 제한되면서 산재근로자의 가계평균소득이 산업재해 발생이전의 소득과 비교하여 평균 30만원 이상(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또는 59만원 정도(임준, 2001)의 차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윤조덕 등, 2001; 이현주 등, 2001), 선천성 장애인과 달리 변화된 신체적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만성적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재활동기가 낮아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은보경, 1998).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산업재해가 재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82.8%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가장의 실업은 개인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어려움으로 파급되는 점(이현주, 2001)과 장애로 인한 역할변화 및 가족들의 과도한 역할부담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갑작스럽게 닥친 복합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 가정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수경 등 1997).

그러나 이를 해결할 가족지원 및 교육이나 가족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승욱 등, 2008).

산업재해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Dembe(1999)는 US National Longitudinal Survey를 분석한 결과 산재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25% 정도 더 이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Strunin et al(2004)의 경우는 만성적인 요통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가족관계에 우울감, 화, 스트레스, 긴장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Dawson(1994)은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나 성생활의 상실, 이혼, 재정압박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산재 근로자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산재 근로자에게 가족이, 산업재해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국내연구 및 통계들은 산업재해발생 건수와 재해자수가 몇 명인지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 경제적 추정만을 분석했기 때문이다(문성현 등,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손상 및 심리적 손상 등을 통해 가족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

여 산재보험 및 사회복지제도의 보완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실제 산업재해로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입원, 통원 포함) 및 치료종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후 가정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직업적, 산재요양 특성 관련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재해 후 가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가정환경 변화의 원인과 사회적지지 기반을 알아본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한 산재 근로자로 한 노무법인 전국 지사에 방문한 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대상자 가운데 연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하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76건을 제외한 38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조사 방법

위 대상자들은 면담을 통한 면접 설문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경제적 수준, 고용 형태, 직장 소속 상태 등 일반적인 특성과 재해종류, 재해상태, 수술여부 및 횟수, 치료 단계, 간병인, 치료기간, 장애등급 등 산재요양의 전반적인 평가에 관한 특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환경의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였다.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정환경의 변화’이며, 변화된 가정환경의 구체적 구분은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가정불화 ③ 자녀문제 ④ 가족취업자 등장 ⑤ 실직 ⑥ 기타 등으로 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산재요양 관련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부양가족을 변수로 하여, 성별은 남, 여로 분류하였고, 나이는 40세 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은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 미혼으로 분류하였고, 부양가족은 없음, 1명, 2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적 요인은 업종, 직종, 고용형태, 임금, 월 가구 총소득, 취업직장 소속 상태를 변수로 하였고,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의 사업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직종은 육체노동자, 사무직, 기술전문직으로,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고, 임금과 월 가구 총소득은 월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이하, 200만원~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재해 후 취업직장의 소속 상태는 재취업, 실업으로 분류하였다.

산재요양관련요인은 재해종류, 재해상태, 수술여부 및 횟수, 치료단계,

간병인, 입원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장애등급 등을 변수로 하여, 재해종류는 골절 및 절단, 과로질병, 근골격계 질환, 기타로 분류하였고, 재해 상태는 보통 이하, 조금 중함, 아주 중함으로 분류하였고, 수술 여부는 안함, 수술함으로 분류하였고, 현재 치료단계는 입원 또는 통원, 치료종결로 구분하였고, 간병인은 가족, 외부인으로 분류하였다. 입원치료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은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장애등급은 1~7급, 8~10급, 11급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조사변수

변 수		내 용
사회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 여
	연령	40세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결혼여부	기혼, 미혼
	부양가족	없음, 1명, 2명 이상
직업적 요인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기타사업
	직종	육체노동자, 사무직, 기술전문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월급여)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이 하, 300만원 이상
	월 가구 총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이 하, 300만원 이상
	직장 소속 상태	재취업, 실업
산재요양 관련요인	재해종류	골절 및 절단, 과로질병, 근골격계, 기타
	재해상태	보통 이하, 조금 중함, 아주 중함
	수술여부 및 횟수	안함, 수술함
	치료단계	입원 또는 통원, 치료종결
	간병인	가족, 외부인
	입원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통원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장해등급	1~7급, 8~10급, 11급 이상

3. 분석 방법

설문지 응답 자료를 회수한 후 불성실한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38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는 SAS 9.1.3을 사용하였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산업재해 요양관련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하였다.

또한, 가정환경 변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어려움과 각 독립변수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가정환경변화 특성

가.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383명 중 남자는 316명(82.5%), 여자는 67명(17.5%)으로 대부분이 남자였다. 나이는 40세~49세가 122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가 278명(72.6%)이었고, 부양가족은 2명이상이 223명(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고졸이 157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요인 중 업종은 건설업 150명(39.2%), 제조업 121명(31.6%), 서비스업 79명(20.6%), 기타업 33명(8.6%) 순이었다. 직종은 육체노동자가 252명(65.8%), 기술전문직이 111명(29.0%), 사무직 20명(5.2%) 순이었으며, 비정규직이 211명(55.1%)으로 정규직 172명(44.9%)보다 더 많았다.

월 급여는 100만원~200만원 이하가 164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가구 총소득은 200만원~300만원 이하가 146명(38.1%), 100만원~200만원 이하가 116명(30.3%), 300만원 초과가 103명(26.9%), 100만원 이하가 18명(4.7%) 순이었고, 산업재해 후 실업자가 211명(55.1%)으로 재취업자 172명(44.9%)보다 많았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
성 별	남	316	82.5
	여	67	17.5
나 이	40세 미만	121	31.6
	40~ 49세	122	31.8
	50~ 59세	98	25.6
	60세 이상	42	11.0
결혼여부	기혼	278	72.6
	미혼/기타	105	27.4
부양가족	없음	80	20.9
	1명	80	20.9
	2명 이상	223	5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9	31.1
	고교 졸	157	41.0
	전문대졸 이상	107	27.9
업 종	제조업	121	31.6
	건설업	150	39.2
	서비스업	79	20.6
	기타업	33	8.6
직 종	육체노동자	252	65.8
	사무직	20	5.2
	기술전문직	111	29.0
고 용 형 태	정규직	172	44.9
	비정규직	211	55.1
월급여	100만원 이하	41	10.7
	100만원~200만원 이하	164	42.8
	200만원~300만원 이하	124	32.4
	300만원 초과	54	14.1
월 가구 총 소득	100만원 이하	18	4.7
	100만원~200만원 이하	116	30.3
	200만원~300만원 이하	146	38.1
	300만원 초과	103	26.9
재해 후 직장소속	재취업	172	44.9
	실업	211	55.1
소계		383	100.0

나. 가정환경변화 특성

조사대상자 총 383명 중 371명(96.9%)이 가정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가정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280명(75.5%)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가정불화 18명(5.1%), 실직 17명(4.6%), 새로운 취업자 등장 9명(2.4%), 자녀문제 4명(1.3%)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의 21~30% 감소가 138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11~20% 감소 63명(16.4%), 31~40% 감소 61명(15.9%), 41~50% 감소 44명(11.5%), 51% 이상 감소 37명(9.7%), 10% 이하 감소 31명(8.1%), 증가 9명(2.4%)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정이 산업재해 후 월평균 가구소득이 감소하였다(표 3).

표 3. 가정환경변화 특성

		구 분	명	%
변화유무	있다		371	96.9
	없다		12	3.1
소계			383	100.0
가장 큰 변화	경제적 어려움		280	75.5
	가정불화		19	5.1
	자녀문제		5	1.3
	새로운 취업자 등장		9	2.4
	실직		17	4.6
	기타		41	11.1
소계			371	100.0
경제적 어려움 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		9	2.4
	10% 이하 감소		31	8.1
	11~20% 감소		63	16.4
	21~30% 감소		138	36.0
	31~40% 감소		61	15.9
	41~50% 감소		44	11.5
	50% 이상 감소		37	9.7
	소계			383

2. 경제적 변화 관련 요인

가정환경 변화 중 경제적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하여 경제적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가정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 나이, 결혼여부, 부양가족 수, 교육수준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가정환경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 남자 72.5%, 여자 76.1%로 산업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에 따른 결과에서는 40세 미만인 경우 61.2%, 40~49세인 경우 76.2%, 50~59세인 경우 81.6%, 60세 이상인 경우 78.6%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학적 의미가 있었다($p < 0.01$).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기혼 80.9%, 미혼 52.4%로 기혼자의 변화가 많았으며($p < 0.001$), 부양가족 없는 경우 52.5%, 1명이 75.0%, 2명 이상인 경우 79.8%로 부양자수가 많을수록 변화율이 높은 양상이었으며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환경변화는 전문대졸 이상이 60.8%, 고졸 78.3%, 중졸이하 77.3%로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환경변화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표 4).

표 4.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

구 분		있음		없음		χ^2
		명	%	명	%	
성 별	남	229	72.5	87	27.5	0.212
	여	51	76.1	16	23.9	
나 이	40세 미만	74	61.2	47	38.8	13.655**
	40~ 49세	93	76.2	29	23.8	
	50~ 59세	80	81.6	18	18.4	
	60세 이상	33	78.6	9	21.4	
결혼여부	기혼	55	52.4	50	47.6	30.171***
	미혼/기타	225	80.9	53	19.1	
부양가족	없음	42	52.5	38	47.5	22.537***
	1명	60	75.0	20	25.0	
	2명 이상	178	79.8	45	20.2	
교육수준	중졸 이하	92	77.3	27	22.7	11.573**
	고교 졸	123	78.3	34	21.7	
	전문대졸 이상	65	60.8	42	39.3	
소계		280	·	103	·	

*p<0.05, **p<0.01, ***p<0.001

나. 직업적 요인

업종, 직종, 고용형태, 월 급여, 월 가구 총 소득, 재해 후 취업여부 정도에 따라 가정환경변화를 조사하였다. 업종에 있어서는 건설업이 80.0%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72.7%, 서비스업이 65.8%, 기타의 사업 60.6% 순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 < 0.05$).

직종에 있어서는 육체노동자 75.0%, 기술전문직 71.2%, 사무직 60.0%로 나타나 육체노동자가 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74.9%로 정규직 70.9%보다 가정환경변화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월 급여 및 월 가구 총 소득에 따른 가정환경변화는 200~30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으며, 재해 후 직장소속에 따른 가정환경변화도 재취업이 77.3%, 실업은 69.7%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표 5).

표 5. 직업적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

구 분		있음		없음		χ^2
		명	%	명	%	
업 종	제조업	88	72.7	33	27.3	8.389*
	건설업	120	80.0	30	2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2	65.8	27	34.2	
	기타의 사업	20	60.6	13	39.4	
.....						
직 종	육체노동자	189	75.0	63	25.0	2.419
	사무직	12	60.0	8	40.0	
	기술전문직	79	71.2	32	28.8	
.....						
고 용 형 태	정규직	122	70.9	50	29.1	0.565
	비정규직	158	74.9	53	25.1	
.....						
월 급여	100만원 이하	28	68.3	13	31.7	0.953
	100만원~200만원 이하	121	73.8	43	26.2	
	200만원~300만원 이하	93	75.0	31	25.0	
	300만원 초과	38	70.4	16	29.6	
.....						
월 가구 총 소득	100만원 이하	13	72.2	5	27.8	3.061
	100만원~200만원 이하	87	75.0	29	25.0	
	200만원~300만원 이하	111	76.6	34	23.5	
	300만원 초과	69	67.0	34	33.0	
.....						
재해 후 직장소속	재취업	133	77.3	39	22.7	2.450
	실업	147	69.7	64	30.3	
소 계		280	.	103	.	

*p<0.05

다. 산업재해 요양관련 요인

재해종류, 재해상태, 수술여부, 치료단계, 간병인, 입원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장애등급을 변수로 조사대상자들의 가정환경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해종류가 골절 및 절단인 경우가 73.5%, 파로질병 64.5%, 근골격계 73.6%, 기타가 76.9%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재해상태에 따른 변화율은 보통 이하 76.5%, 조금 중합 73.1%, 아주 중합 68.3%로 분석되었고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수술여부에 따른 변화율은 수술미실시가 80.3%로 수술실시 71.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으며, 치료단계에 따른 변화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종결 74.1%, 입원 또는 통원 71.3%로 치료종결 후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에 따른 변화율은 가족이 76.6%, 외부인 64.9%로 가족이 간병을 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지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입원치료기간은 3개월 미만 80.8%, 3개월~6개월 미만 69.9%, 6개월 이상 66.0%로 입원치료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통계학적 의미가 있었으나($p < 0.05$), 통원치료기간은 3개월 미만 76.3%, 3개월~6개월 미만 72.5%, 6개월 이상 72.2%로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 또한 장애등급에 있어 1~7급 57.5%, 8~10급 71.8%, 11급 이상 79.6%로 장애가 경미 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상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p < 0.05$)(표 6).

표 6. 산재요양 관련 요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여부

구분	있음		없음		χ^2	
	명	%	명	%		
재해종류	골절 및 절단	200	73.5	72	26.5	1.384
	과로질병	20	64.5	11	35.5	
	근골격계	39	73.6	14	26.4	
	기타	20	76.9	6	23.1	
재해상태	보통 이하	91	76.5	28	23.5	1.652
	조금 중합	133	73.1	49	26.9	
	아주 중합	56	68.3	26	31.7	
수술여부	안함	53	80.3	13	19.7	1.569
	수술함	225	71.9	88	28.1	
치료단계	입원 또는 통원	97	71.3	39	28.7	0.215
	치료종결	183	74.1	64	25.9	
간병한 사람	가족	206	76.6	63	23.4	4.967*
	외부인	74	64.9	40	35.1	
입원치료 기간	3개월 미만	122	80.8	29	19.2	7.734*
	3~6개월 이하	95	69.9	41	30.1	
	6개월 초과	62	66.0	32	34.0	
통원치료 기간	3개월 미만	74	76.3	23	23.7	0.569
	3~6개월 이하	116	72.5	44	27.5	
	6개월 초과	83	72.2	32	27.8	
장해등급	1~7급	27	57.5	20	42.6	9.007*
	8~10급	56	71.8	22	28.2	
	11급 이상	113	79.6	29	20.4	
요양상태	요양중	83	72.2	32	27.8	0.015
	요양종결	196	73.4	71	26.6	

*p<0.05

3. 산업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업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산재요양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산업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을 종속변수로 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특성 중 연령을 기준으로 40세 미만인 사람에 비해 40~50세 이하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 약 2배(OR=2.04, CI: 1.17-3.55) 높았고, 50~59세 이하인 사람이 약 2.8배(OR=2.82, CI: 1.51-5.29), 60세 이상인 사람이 약 2.3배(OR=2.33, CI: 1.02-5.30)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인 사람에 비해 기혼인 사람이 약 3.8배(OR=3.86, CI: 2.73-6.28) 높아 기혼자 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다. 부양가족인 없는 사람에 비해 1명 있는 사람은 약 2.7배(OR=2.71, CI: 1.39-5.30), 2명 있는 사람이 약 3.5배(OR=3.58, CI: 2.07-6.19) 높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인 사람이 중졸 이하인 사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약 0.4배(OR=0.45, CI: 0.26-0.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직업적 요인과 관련된 특성 중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8).

산재요양관련 요인과 관련된 특성 중 산재환자의 간병을 가족이 하는 경우에 비해 외부인이 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0.5배(OR=0.57, CI: 0.35-0.91)로 나타나 가족이 간병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원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 3~6개월 이하

인 사람이 0.5배(OR=0.55, CI; 0.32-0.95), 6개월 이상인 사람이 0.4배(OR=0.46, CI; 0.26-0.83)로 입원치료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원치료기간에 대한 통계학적 의미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표 9).

표 7.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CI(95%)
성별(남성)		
여성	1.21	0.66-2.24
연령		
40세 미만	1.00	
40~49세	2.04	1.17-3.55
50~59세	2.82	1.51-5.29
60세 이상	2.33	1.02-5.30
결혼(미혼)		
기혼	3.86	2.37-6.28
부양가족		
없음	1.00	
1명	2.71	1.39-5.30
2명 이상	3.58	2.07-6.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	
고교 졸	1.06	0.60-1.88
전문대졸 이상	0.45	0.26-0.81

표 8.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OR	CI(95%)
업종		
제조업	1.00	
건설업	1.50	0.85-2.64
운수창고 및 통신업	0.72	0.39-1.33
기타	0.58	0.26-1.29
직종		
육체노동자	1.00	
사무직	0.50	0.20-1.28
기술전문직	0.82	0.50-1.36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1.22	0.78-1.92
월 급여		
100만원 이하	1.00	
100만원~200만원 이하	1.31	0.62-2.75
200만원~300만원 이하	1.39	0.64-3.02
300만원 초과	1.10	0.46-2.66
월 가구 총 소득		
100만원 이하	1.00	
100만원~200만원 이하	1.15	0.38-3.51
200만원~300만원 이하	1.26	0.42-3.78
300만원 초과	0.78	0.26-2.37
재해 후 직장소속(취업)		
실업	0.67	0.42-1.07

표 9.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산재요양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OR	CI(95%)
재해종류		
골절 및 절단	1.00	
파로질병	0.65	0.30-1.43
근골격계	1.00	0.51-1.96
기타	1.20	0.46-3.11
재해상태		
보통이하	1.00	
조금중함	0.84	0.49-1.43
아주중함	0.66	0.35-1.24
수술여부(실시)		
미실시	0.63	0.33-1.21
치료단계(입원 또는 통원)		
치료종결	1.15	0.72-1.84
간병인(가족)		
외부인	0.57	0.35-0.91
입원치료기간		
3개월 미만	1.00	
3~6개월 이하	0.55	0.32-0.95
6개월 이상	0.46	0.26-0.83
통원치료기간		
3개월 미만	1.00	
3~6개월 이하	0.82	0.46-1.47
6개월 이상	0.81	0.43-1.50
장해등급		
11급 이상	1.00	
8~10급	0.62	0.34-1.24
1~7급	0.35	0.17-0.70

4. 경제적 어려움 이외의 가정환경 변화

산업재해 후 가족 사이의 친밀도가 낮아진 경우가 제일 많았고(173명, 45.2%),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96명, 25.0%). 산재근로자가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333명(86.9%) 있었으며, 반대로 가족들이 산재근로자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321명(83.8%)으로 산업재해 후 산재근로자와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가족이 280명(73.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외부인은 103명(26.9%)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후 가정문제에 대하여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가 82명(21.4%)으로 없는 경우 301명(78.6%)보다 훨씬 적었으며, 상담자의 대부분은 가족으로 44명(53.6%)이나 되었다.

직장문제에 대하여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195명(50.9%)으로 없는 경우 188명(49.1%)과 큰 차이는 없었다. 직장문제 상담자는 회사 관계자가 72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47명(23.7%),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30명(15.5%) 순이었다(표 10).

표 10. 경제적 어려움 이외의 가정환경 변화

구 분		조사 대상자	
		명	%
가족 간 친밀도 변화	없음	114	29.8
	높아짐	96	25.0
	낮아짐	173	45.2

산재근로자가 가족들에게 느끼는 부담감	없음	50	13.1
	있음	333	86.9

가족들이 산재근로자에게 느끼는 부담감	없음	62	16.2
	있음	321	83.8

재활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	없음	33	8.6
	있음	350	91.4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	가족	280	73.1
	외부인	103	26.9

소계		383	100.0

가정 문제 상담 경험	있다	82	21.4
	없다	301	78.6

가정 문제 상담자	가족	44	53.6
	근로복지공단 직원	9	11.0
	회사 관계자	5	6.1
	의사나 간호사	5	6.1
	병원행정 직원	4	4.9
	기타	15	18.3

소계		82	100.0

직장 문제 상담 경험	있다	195	50.9
	없다	188	49.1

직장 문제 상담자	가족	47	23.7
	근로복지공단 직원	30	15.5
	회사 관계자	72	37.1
	의사나 간호사	5	2.6
	병원행정 직원	12	6.2
	기타	29	14.9

소계		195	100.0

IV. 고 찰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고 있거나 요양 종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후에 가정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변화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총 383명 중 371명(96.9%)에서 가정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주된 내용은 경제적 변화와 가족 사이의 심리적 변화였다. 가정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280명(75.5%)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불화 18명(5.1%), 실직 17명(4.6%), 새로운 취업자 등장 9명(2.4%), 자녀문제 4명(1.3%)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산재요양 관련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결혼여부, 부양가족 수, 교육수준이 관련이 있었고, 산재요양관련 요인으로는 간병인과 입원치료기간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회복 능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성인병 등에 의한 퇴행성 질환과 복합되어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는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문제가 산업재해에 의한 신체적 기능상실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퇴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결국 작업장으로의 복귀율이 낮아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조사와(이승렬, 2005)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혼여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경제적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82.8%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소득 감소는 개인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어려움으로 파급되는 점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숙련정도가 높아 고용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으며, 재해를 통해 일정정도 건강이 불리한 상태에서 교육이 높을수록 다양한 숙련기술을 통하여 작업라인을 변경시키는 등 직무수행시 융통성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고(Johnson 과 Ondrich, 1990; 박수경, 1999; 이승렬, 2003)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적 요인과 관련된 특성 중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서비스업이나 기타의 업종에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많은 고령자이며 산재사고 발생 후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육체적 장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이전에는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직(33.4%), 단순노무직(28.7%), 장치기계조립(17.6%)의 비율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던 반면 산재 이후에는 기능직(8.6%), 단순노무직(6.9%), 장치기계조립(5.2%)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20%로 산재이전에 비해 1/4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신체활동이 비교적 적게 필요한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산재 전후의 종사비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조사(박수경, 1999)와 관련된 결과라 하겠다.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산재요양 관련 요인에서는 입원치료기간

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 3~6개월 이하인 사람이 0.5배(OR=0.55, CI: 0.32-0.95), 6개월 이상인 사람이 0.4배(OR=0.46, CI: 0.26-0.83)로 입원치료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치료기간과 경제적 어려움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자를 요양종결자와 요양중인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요양중인자는 요양기간이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요양종결자의 경우 입원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비해 3~6개월 이하인 사람이 0.4배(OR=0.35, CI: 0.16-0.76), 6개월 이상인 사람이 0.3배(OR=0.26, CI: 0.11-0.61)로 입원치료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이유는 장애연금 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요양기간이 긴 집단이 장애등급이 높고 요양기간이 짧은 집단의 경우 연금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 장애등급이거나 장애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장기 입원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상태는 연금수급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연구(문성현 등, 2008)와 일치하였다.

로지스틱 회계분석 결과 산재요양과 관련 간병을 외부인이 실시할 때가 가족이 간병할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약 0.5배(OR=0.57, CI: 0.35-0.91)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료가 가족이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액보다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간병을 가족이 하였을 경우 산재 요양자에게 전해지는 심리적·정서적 안정의 효과는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가정 문제

나 직장 문제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약 절반의 가정이 가족 사이의 친밀도가 낮아졌으며, 산재 근로자나 가족들이 서로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약 85%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재해의 발생은 산재 근로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산재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가족(91.4%)이었으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가족(73.1%)인 것으로 보아, 산재 근로자 재활에 가족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어 가족의 지지적인 환경은 산재 환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고 배우자의 지원이 산재장애인의 재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이윤희, 2003; 윤조덕 등, 2001)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정문제에 대하여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1.4%로 가족문제를 상담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에서는 가족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연계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가족해체나 갈등 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산재근로자가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지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문제에 대한 상담경험이 있는 자도 절반(50.9%)에 밖에 미치지 못하였고, 상담자도 회사관계자와 가족이 약 6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중인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 근로자가 가능한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자의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재해 후 가정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재해 전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경제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상세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산재근로자의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별로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전·후 가정환경에는 어떠한 변화를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삶의 질 향상에 이를 수 있는 요인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치료 종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후 가정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중 96.9%가 가정환경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중 75.5%가 가장 큰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 여부에 성별의 차이는 없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 보다 기혼인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다. 직업적 요인 중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가 기타의 다른 업종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의미 있게 많았다. 산재요양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입원치료기간이 짧을수록, 간병을 다른 사람들 보다 가족이 할 때, 장애등급이 낮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경제적 어려움은 연령, 결혼유무, 부양가족 수, 교육수준, 업종, 간병인, 입원치료 기간, 장애등급에 따라 주로 결정되었다.

한편, 경제적 변화이외에도 가족 사이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부담감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 및 다양한 가정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상담 등 사회적 지지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성현, 박은주. 산재근로자 장기요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08
- 박수경, 이익섭, 김재엽. 산재장애인의 가정내 통합과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 가족과 문화 1997; 3: 121-138
- 윤조덕, 박수경, 박정란, 권선진, 이현주, 진혜랑.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은보경. 산업재해장애인의 심리적 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이승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승욱, 박혜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직업재활연구 2007; 17(1): 69-99
- 이승욱, 김장기, 김태윤. 산재요양 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08
- 이윤희. 산업재해환자의 가족지지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현주. 산업재해로 인한 만성 요통 근로자의 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현주, 윤순녕, 최정명, 현혜진, 백은광. 재가 산재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임준. 산재노동자의 재활 요구에 비추어본 정부 재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9-38
- 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2007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재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1996
- Kaplan SP. Adaptation following serious brain injury: An assessment after one year,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988;19(3):3-8
- Johnson WG, Ondrich J. The duration of post-injury absence from work.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0
- Holahan CJ, Moos RH.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2):389-395
- Dembe A. Social inequalities in occupational health and health care for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Int J Law Psychiatry* 1999;22:567
- Strunin L, Boden L. Family consequences of chronic back pain. *Soc Sci Med* 2004;58:1385-1393
- Dawson S. Workers compensation in Pennsylvania: The effects of delayed contested cases. *J Health Soc Policy* 1994;6:87-100

설문지

산재근로자 재해 전후 가정환경의 변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산재근로자들의 재해 전후 가정환경의 변화를 조사하여 산재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료수집의 결과는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이 연구의 밑거름이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연구자 : 문웅

1. 기본 사항

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 ① 20세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
세 이상

3. 현재 결혼 상태는 ?

① 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기타(사별 등)

4. 부양가족은(본인제외) ?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5. 최종학력은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전문대 졸 ⑥ 4년제 대학 이상

6-1. 귀하 직장의 사업 업종은 ?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서비스업 ④ 운수업 ⑤ 농림수산업
⑥ 기타()

6-2. 귀하의 직종은 ?

- ① 육체노동자 ② 사무직 ③ 기술직 ④ 전문직 ⑤ 기타()

6-3. 사고 당시 고용 형태는 ?

- ① 정규직 ② 파견 근로자 ③ 일용직 ④ 계약직 ⑤ 기타()

7-1. 재해 전 귀하의 급여는 ?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② 월 소득 101만원~150만원
③ 월 소득 151만원~200만원 ④ 월 소득 201만원~300만원
⑤ 월 소득 301만원~500만원 ⑥ 월 소득 500만원 이상

7-2. 재해 전 월 가구 총 소득은 ?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② 월 소득 101만원~150만원
③ 월 소득 151만원~200만원 ④ 월 소득 201만원~300만원
⑤ 월 소득 301만원~500만원 ⑥ 월 소득 500만원 이상

8. 재해 후 취업직장의 소속 상태 ?

- ① 원직장 원직무 복귀 ② 원직장 타직무 ③ 타직장 원직무

④ 타직장 타직무 ⑤ 실업

9-1. 귀하의 상병명은 ?

9-2. 귀하의 재해 종류는 ?

① 골절 ② 절단 ③ 과로질병 ④ 근골격계 ⑤ 유해물질 직업병
⑥ 기타 ()

9-3. 귀하의 재해상태는 ?

① 경미 ② 보통 ③ 조금 중함 ④ 아주 중함

9-4. 수술여부 및 횟수 ?

① 안함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이상

10. 귀하의 현재 치료단계는 ?

① 입원치료 중(재요양 포함) ② 통원치료 중 ③ 치료 종결

11-1. 누가 귀하를 간병하였나요 ?

① 가족 ② 친척 ③ 지인(친구) ④ 간병인 ⑤ 본인

11-2. 재해 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도움 받았나요?

① 가족 ② 근로복지공단 직원 ③ 회사관계자 ④ 의사나 간호사
⑤ 병원행정직원 ⑥ 기타()

12-1. 산재를 당한 후 가정 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2-2. 상담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와 상담하였나요?

① 가족 ② 근로복지공단 직원 ③ 회사관계자 ④ 의사나 간호사

⑤ 병원행정직원 ⑥ 기타()

12-3. 산재를 당한 후 직장 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2-4. 상담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와 상담하였나요?

① 가족 ② 근로복지공단 직원 ③ 회사관계자 ④ 의사나 간호사

⑤ 병원행정직원 ⑥ 기타()

13-1. 산재를 당한 후 가족들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3-2.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신체장해 ③ 실직 ④ 가장으로 역할을 못함

⑤ 성적문제 ⑥ 기타()

14-1. 귀하의 입원 치료기간은 ?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③ 6~12개월 ④ 1년~2년 ⑤ 2년 이상

14-2. 귀하의 통원 치료기간은 ?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③ 6~12개월 ④ 1년~2년 ⑤ 2년 이상

15.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몇 급?

① 1~3급 ② 4~7급 ③ 8~10급 ④ 11~14급 ⑤ 무장애

2. 재해 후 가정환경의 변화

16-0. 재해로 인하여 가정환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6-1. 재해로 인한 가정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가정불화(이혼 또는 별거 포함) ③ 자녀문제(학업, 비행 등) ④ 새로운 취업구성원 등장 ⑤ 실직 ⑥ 기타()

16-2. 가정불화의 된 가장 큰 이유는?(16-1 ② 선택한 분)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자녀문제 ③ 실직 ④ 성적 문제 ⑤ 기타()

16-3. 자녀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16-1 ③ 선택한 분)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가정불화(이혼 또는 별거) ③ 실직
④ 기타 ()

16-4. 재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취업자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6-5.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17-1. 재해 후 월 가구 총 소득의 변화는?

- ① 증가 ② 10% 내 감소 ③ 11~20% 감소 ④ 21~30% 감소
⑤ 31~40% 감소 ⑥ 41~50% 감소 ⑦ 51% 이상

17-2. 감소되었다면 충당된 수입원은 ?

- ① 회사의 추가보상(근재보험 포함) ② 개인보험 ③ 가족취업
④ 절약 ⑤ 기타 ()

18. 사고 후 가족 간 친밀도(의사소통)의 변화는?

① 없음 ② 높아짐 ③ 조금 낮아짐 ④ 보통 낮아짐 ⑤ 매우 낮아짐

19. 본인이 가족들에게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 ?

① 없음 ② 조금 ③ 보통 ④ 조금 많음 ⑤ 매우 많음

20. 가족들이 본인에게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는 ?

① 없음 ② 조금 ③ 보통 ④ 조금 많음 ⑤ 매우 많음

21. 본인의 재활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은 ?

① 없음 ② 조금 ③ 보통 ④ 조금 많음 ⑤ 매우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Family Environment Changes After Worker's Injury in an Industrial Accident

Woong Moon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over what changes occurred in their familial environment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

The total 383 injured workers were interviewed from April 1 to 30 in 2009, and factors related to family environment changes such as demography, jobs, and medical care related factors were surveyed.

The 96.9% of subjects replied they had familial environment changes due to economic problems, family discord, and children-related problems, and the most frequent reason was economic difficulty at 75.7%.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the older and married workers were experienced more economic difficulties(OR=3.86, CI; 2.73-6.28).

The workers with one depend family(OR=2.71, CI; 1.39-5.30) and workers with two or more dependents(OR=3.58, CI; 2.07-6.19) experienced more economic difficulty than those without dependents. In terms of education level, those with at least college education

experienced less economic difficulty than those who had middle school education or less (OR=0.45, CI; 0.26-0.81).

The short length of stay was related to the more severe economic difficulty.

The workers with length of stay between three to six months (OR=0.55, CI; 0.32-0.95) and length of stay over six months (OR=0.46, CI; 0.26-0.83) had more severe economic difficulty

Most families felt that their family environment had changed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and the economic difficulty was the most frequent and severe problem biggest change. The degree of economic difficulty was related to age,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dependents, education level, job type, persons caring the injured workers,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the degree of disability. Accordingly, during the recuperation period, the family members of workers injured in an industrial accident should take note of the above stated factors and work toward overcoming their economic difficulty.

Key Words: family environment changes, occupational injuries, injured workers, economic difficulty, industrial accident, care related factor